박원자의 母情佛心 30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자광 스님은 9살에 생모를 여의고, 한국전쟁서 아버지를 잃었다. 어린 시절 방황하던 중 철학 서적을 탐독했고, 출가자의 삶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 출가한 자광 스님은 은사 경산 스님과 사제 인연을 맺었고, 은사처럼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자광 스님에게 은사 경산 스님은 어머니와 같다.

"제 어머니는 은사 경산 스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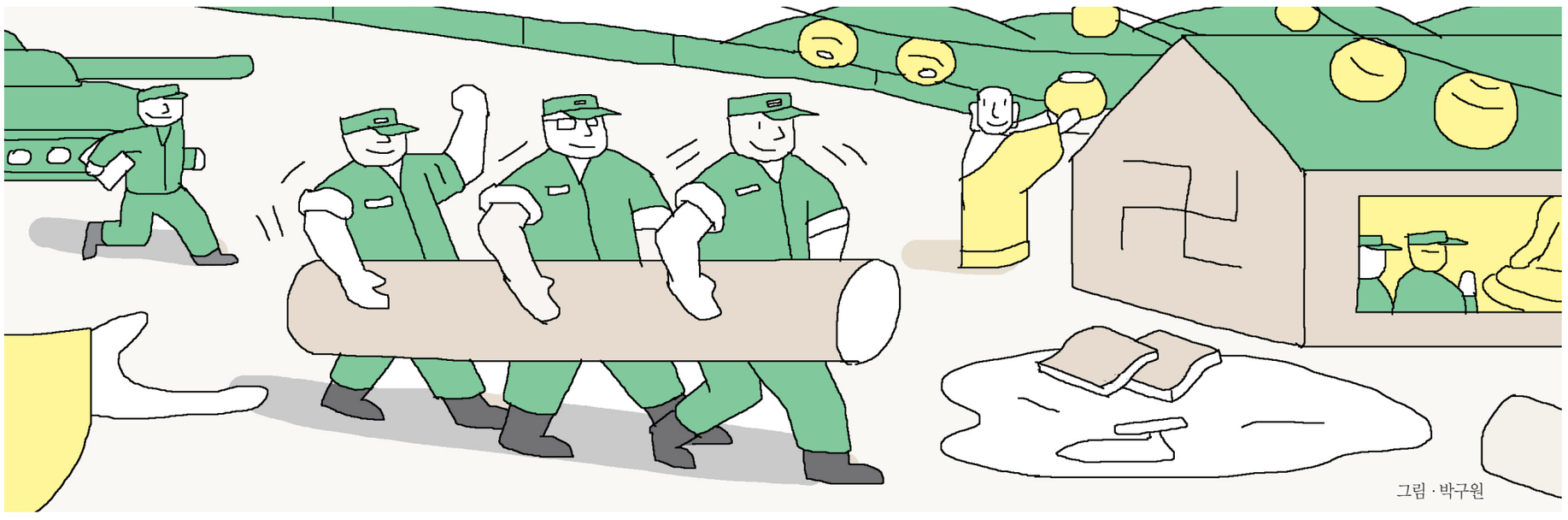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9살에 생모, 한국전쟁서 친부 잃어
친형 아래 자라며 어린 시절 방황
철학 서적들 탐독하다 출가 결심해
1959년 경산 스님 시봉하며 '인연'
은사 생전 모습 따르려 부단히 노력
"자녀 교육, '사람 되는 교육'부터"

"우리 어머니는 제 은사스님이세요."

어머니에 대해 여쭙자 세수 여든이 넘으신 자광 스님께서 단박에 하신 말씀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모든 걸 가르쳐주셨죠. 모성애와 자비를 가르쳐주셨고 친절과 뭇 생명을 포용하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비를 행하고 친절을 행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라는 말씀인 것 같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말씀에 세상의 어머니들은 최상의 교육자임에 틀림없다.

"자비를 배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세상에 나오셨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가 어버이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남과 더불어 살 때 부닥침이 없도록 가르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은사 스님이 어머니이셨죠."

스님의 은사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손경산(1917~1979) 스님이다. 경산 스님은 청정비구의 표상과 같은 수행자다. 율사이자 선사로 정화불사에 헌신, 한국불교 정화의 기수 역할을 했고,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큰 강물의 발원지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다. 또한 지금의 동국대학교를 종립대학으로 확립하는 데 초석을 마련한 분이다.

자광 스님은 은사 스님을 18살에 만났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배우고 익혔다. 그러므로 은사 스님은 18살 이후의 어머니와 다름없다.

"자비의 화신이 어머니 아닙니까? 무엇이든 다 조건 없이 들어주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자식이 별 짓을 다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잖아요. 또 바르게 가르치려고 회초리를 드는 것도 어머니죠. 회초리도 자비심이에요."

어머니들은 인생을 보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필수일 것 같다. 자식은 그대로 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을 닮는다. 그래서 훗날 어머니 모습 그대로 행동한다. 그걸 생각하면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어머니다.

3남 4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스님은 9살에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전부일 나이에 어머니의 부재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념의 희생물로 한국전쟁 당시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에 겪었던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한국전쟁 때 수많은 주검을 목격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극한의 환경이었다. 경찰이었던 형님 밑에서 자라며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다.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은 지독한 외로움이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답이 없었다. 철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미래에도무지 별 희망이 없어보이던 그때 불교의 진리가 대단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출가를 결심했다. 피할 길이 없어보이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행자가 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지리산 화엄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 숯 물을 들여 만든 광목옷을 입고 지리산의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났다. 부목, 채공, 공양주까지 전천후 안 해본 것 없이 골고루 하며 행자시절을 보냈다. 생명의 발전을 위한 과정들이라 여기니 고달프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다 제2의 어머니인 은사 스님을 만났다. 1959년 어느 봄날 조계사에서였다.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삼배를 올리고 수줍게 올려다 본 은사 스님은 거룩한 성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선방 수좌로 불교정화를 위해 총무원의 교무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은사스님은 자신을 시봉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행자를 자세히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들어 상좌로 받아들인다는 표시였다. 그날부터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듯 은사 스님을 시봉했다.

은사 스님은 말할 수 없이 순진하고 겸손하셨다.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도 꾸밈없이 담백하게 대하셨다. 함부로 대하는 일은 꿈에서도 없던 분이다. 아랫사람에게조차 말을 놓은 적이 없었다. 행자인 상좌를 부를 때도 ' 거기, 행자 있어요' 라고 불렀다. 그래서인지 자광 스님도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쓴다. 개인적으로 자광 스님을 오래 뵈어왔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반말을 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은사 스님은 날마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면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쳤다. 사미계를 받기까지 10개월 동안 하루 한두 시간씩 은사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공부하면서 위대한 도인 원효스님을 만났다. 그리고 은사 스님의 청정 비구 정신을 뼛속까지 깊이 새겼다. 은사 스님께 글을 배우고 익히며 이런 도리대로 살아야 진정한 '사람'도 될 것이며 '부처' 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 시절 지방에 계시던 큰스님들이 총무원으로 회의를 하러 오시면 스님이 물심부름을 했다.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큰스님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셨다.

"아이구 똑같네. 경산 스님 숨겨놓은 아들 왔네."

그러면 은사 스님이 화를 내는 듯한 얼굴로 아니라고 손을 내젖곤 했다. 각종 회의 때마다 큰스님들은 유머로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했는데, 유난히 은사 스님은 말씀도 많지 않고 말주변도 없었다.

"군 포교를 하시면서 수많은 법회를 열고 설법을 해서 청년들을 감화시켰으니 말주변은 은사를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진로 위에는 늘 은사 스님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한 제게 수계한 뒤 학교를 다시 다니게 해서 졸업장을 받게 했어요. 해인사 강원에서 경을 다 배우고 나면 대 논사가돼 선방에 들어가 언어도단에 이르는 길을 뚫어야겠다고 다짐하며 경전공부를 하고 있을 때 동국대에 들어가서 공부할 것을 명한 분도 은사 스님이셨어요. 그렇게 한번 운명의 길을 바꾸었는데, 군대에 다녀와서 선방에 있는데 저를 불러 군승으로 군대에 가라고 명하셨어요. 당신의 상좌를 군대에 한 번 더 보내야 군승제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은사의 뜻에 따라 운명이 달라졌지만 결국 은사의 뜻대로 산 것이 청정 비구의 정신을 잃지 않고 출가의 길을 걸어온 원동력이 되었죠."

"아무리 스승의 명이라고 해도 자신의 뜻을 접고 군대를 한 번 더 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조계사에서 포교활동을 할 때 주로 노인들이나 여성 불자들이 절에 오는 것을 보면서 포교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차라리 많은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군포교를 하는 것도 부처님의 빛을 갚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이 합법적이었던 관계로 군법사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은사 스님은 염려를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장가가지 말거라. 내 계맥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편지를 받고 청정비구의 상징으로 통했던 은사의 위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끝내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청정 비구로 있다가 종단에 복귀했다. 대학원에서 계율을 공부하게 된 동기도 스승의 계맥을 잇기 위한 때문이었다.

자광 스님은 불교 군승제도가 시행되자 군승 중위로 임관돼 25년 동안 군승으로 재직했다. 대한민국 군대 내 모든 군종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군종감을 역임하고, 2012년에는 군종특별교구장으로서 논산 훈련소 법당인 호국연무사 대작불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대 후, 2016년에는 반세기 전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했던 은사 스님의 뒤를 이어 동국대 이사장을 지냈다.

군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계해준 장병이 4만 6000명, 장병을 상대로 한 법회와 설법이 4600회, 군승도 100여 명으로 늘려놓았고 수많은 군 사찰을 건립했다.

"군승은 반드시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장병들을 대해줘야 합니다. 장병들이 절에 오면 국수도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하면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히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법문과 상담, 인격지도 교육이 군승들이 하는 일이죠."

수많은 장병들의 자비로운 어머니 역할을 하신 스님이 요즘 어머니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궁금했다.

"사람이 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물질만 공급할 줄 알고 정신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돼요. 밥상머리 교육, 예절 교육,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더불어 사는 걸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어머니들이 제 자식만 감싸고돈 결과죠. "

"은사 스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우리 스님은 통합종단 전후로 총무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셨으면서도 상좌들이 모여 당신의 제사를 지낼만한 사찰 하나 없이 입적하셨어요. 종단에 계시는 동안 본사는 고사하고 말사 하나 상좌들에게 맡기지 않고 있을 때 은사 스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문도들이 수십 명인데 우리 문중도 기댈 근거지는 한 곳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은사 스님께서도 노년에 머무실만한 교구본사가 있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다가 얻어맞다시피 쫓겨 나온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종단의 화합만을 가슴에 품었던 분이죠."

여러모로 스님은 어머니인 은사 스님을 닮았다. 대찰을 마다하고 용인에 반야선원을 지어 신도들을 맞으며 조촐히 지내고 있는 것도,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은사 스님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는 것도 꼭 은사 경산 스님 모습 그대로다. 입적하는 날까지 종단을 위해 애쓰셨던 은사 스님처럼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이라는 현직에 있으면서 일하는 것도 닮았다. 자식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닮는 것처럼.

〈작가〉

불기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6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 신문사는 임인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원고마감 : 2022년 4월 25일(월)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전화 02)2004-8216 팩스 02)737-0698
E-mail jabi2018@naver.com

지사지국 접수처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